

## 6.2 지방선거, 20대의 화려한 귀환

---

2010.6.4 | 조성주\_새사연 연구원 | bkkim21kr@saesayon.org

---

### 목 차

1. 북풍(北風)을 역풍(逆風)으로 답한 20대와 40대
2. 사건의 시작은 촛불
3. 제도의 개선이 필요
4. 불통의 시대, 소통부재의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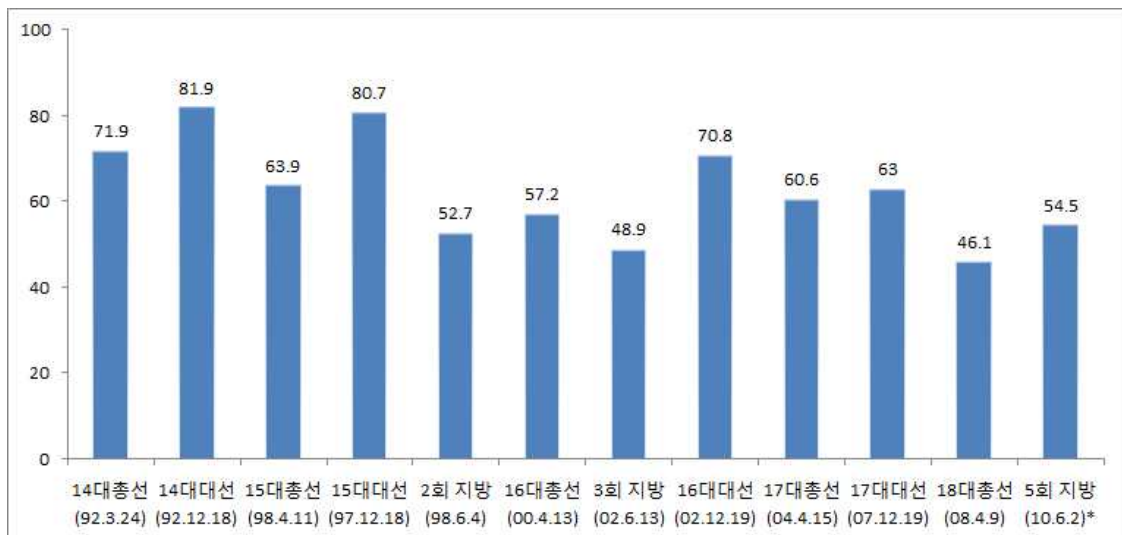
---

<http://saesayon.org>

제5회 지방선거가 야권의 극적인 대역전극으로 끝났다. 인천, 충남, 충북, 경남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석권했고 서울과 경기도는 아깝게 석패했지만 현 정부의 독주를 저지할만한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대역전극은 향후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대북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의 대역전극이라는 지방선거 결과 말고도 또 하나의 유의미한 정치적 사건이 있다. 바로 20대가 정치무대로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다. 그것도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t)로 무장한 채.

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의 띄는 변화는 그동안 몇 년째 하락세를 지속하던 투표율이 반등했다는 것이다. 투표일 이전부터 적극적 투표층이 증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도 되더니 결국 투표당일 투표율은 2006년 지방선거 전국투표율 51.6퍼센트를 넘어 54.5퍼센트에 달했다. 비록 비율로는 약 2.9퍼센트가 상승한 것에 불과하지만 2002년 16대 대선과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파르게 떨어지던 투표율이 하락세를 박차고 반등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다. 스포츠와 비교하자면 한번 연패를 시작한 팀은 계속해서 연패를 거듭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연패라는 추세는 쉽게 반등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패가 끝나는 경기는 보통 매우 극적인 경기가 연출되곤 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 민생경제의 악화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정치냉소주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투표율이 상승세로 반등한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극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림1 역대 주요선거 투표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위:퍼센트, \*:2일 잠정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를 비롯한 많은 선거분석가들이 지적하는 투표율 상승의 원인은 바로 20-30대,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참가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6월2일 투표 당일 투표소에는 예년과 다르게 오후부터 젊은 세대가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투표참여는 상대적으로 야당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후보들이 크게 선전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2004년 탄핵반대열풍 이후 근 6년 만에 선거로 복귀한 20-30대는 야당이 열세로 지목되던 각 지역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며 이번 선거를 역대선거 중 가장 극적인 선거로 만들어 버렸다.

<표1 6.2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및 연령별 지지율>

지역	정당	후보자	예상득표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서울	한나라당	오세훈	47.4	34.0	27.8	39.8	57.6	71.8
	민주당	한명숙	47.2	56.7	64.2	54.2	38.8	26.0
경기도	한나라당	김문수	52.1	34.7	31.7	46.1	66.5	80.7
	국민참여당	유시민	47.9	65.3	68.3	53.9	33.5	19.3
인천	한나라당	안상수	45.5	30.1	26.1	37.4	53.8	69.8
	민주당	송영길	52.1	65.5	70.5	60.7	45.2	29.4
강원도	한나라당	이계진	46.6	32.0	28.2	31.7	51.8	70.0
	민주당	이광재	53.4	68.0	71.8	68.3	48.2	30.0
경상남도	한나라당	이달곤	48.5	33.5	29.9	36.1	53.8	71.4
	무소속	김두관	51.5	66.5	70.1	63.9	46.2	28.6

표1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대와 30대는 민주당, 또는 야권단일후보들에게 한나라당 후보들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넘는 지지를 보냈다. 더구나 여기에 2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겹치면서 야당의 대역전극이 연출된 것이라 분석이 가능하다. 특이한 것은 전통적으로 최근 선거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던 40대도 야당지지로 크게 돌아섰다는 것이다.

### 1. 북풍(北風)을 역풍(逆風)으로 답한 20대와 40대

그렇다면 그동안 선거에 지독히도 무관심한 세대라는 악평까지 들어왔던 이들이 갑자기 이번 지방선거에 대거 참여하고 정치무대로 화려하게 귀환한 원인이 무엇일까?

20대의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해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2000년대 들어 심각해진 취업난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20대가 정치보다는 눈앞의 취업준비에 매달리거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현실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대 청년층은 오히려 선거에서 ‘기권’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최근 선거의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단위 : %)

성별	남 자								여 자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08 18대 국선	38.6	40.9	23.4	29.6	38.9	49.6	63.1	74.3	27.3	24.1	25.0	32.5	40.0	46.1	57.5	59.1
'07 17대 대선	55.2	55.6	39.9	47.9	56.2	66.0	77.3	83.3	53.1	46.2	46.0	54.7	60.8	66.7	75.8	71.2
'06 4회 지선	41.3	44.8	27.4	33.7	43.0	54.8	68.9	78.7	34.2	31.3	31.9	40.4	48.3	56.1	67.5	65.4
'04 17대 국선	-	52.6	41.1	51.5	60.0	67.5	77.2	80.7	-	39.0	45.6	54.9	59.7	64.4	72.3	65.0
'02 16대 대선	-	63.1	51.9	61.5	69.6	76.5	84.7	85.6	-	52.3	58.6	67.1	72.0	76.2	82.7	73.9
'02 3회 지선	-	45.4	25.3	31.1	41.7	55.1	70.7	79.3	-	26.7	28.7	38.1	48.2	57.3	69.4	67.7

그러나 이번 6.2 지방선거는 달랐다. 20대가 이번 선거에서 기권이라는 방식이 아닌 적극적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대가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롭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거를 주도한 주요이슈들에 대한 20대의 반응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20대들의 반응은 사뭇 남달랐다.

이미 선거전부터 20-30대 청년층에서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 결과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 선거결과가 말해주듯이 북풍에 대한 역풍의 진원지는 20대와 여당의 ‘전쟁불사론’으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sup>1)</sup>에 증권시장을 비롯해 실물경제까지 위기감이 확산되자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반발하게 된 40대의 이반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소위 ‘북풍’을 이용해 보수층 표를 결집하려 했고 이것이 지방선거 전체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치무대에서 퇴장한 것처럼 보였던 20대는 이 북풍에 가장 흔들리지 않은 세대였다. 20대는 보수언론의 각종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조사결과를 가장 신뢰하지 않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

1) 천안함 사태와 한반도 긴장 격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등장한 한반도 안보 리스크.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2010.5.27

거에 북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해 오히려 북풍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sup>2)</sup>

결국 선거전에 실시되었던 천안함 등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이 여권의 북풍몰이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오히려 대거 야권에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젊은 층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설명되지만 투표장까지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 무엇이 20대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든 것일까?

## 2. 사건의 시작은 촛불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대들의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이 이전에 정치 무대에서 잠시나마 대거 퇴장한 세대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의 표에서 확인했듯이 20대는 2004년 네티즌들이 주도한 탄핵반대 열풍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장에서 이탈해왔다. 이런 20대들의 투표에서의 이탈은 적어도 2008년 4월 총선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2008년 총선에서 20대가 대거 기권이라는 방식으로 선거무대에서 퇴장한 바로 한 달 후 거리에서 촛불집회가 발생한다. 촛불집회는 10대가 선도하고 2,30대가 중반이후 대거 참여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인터넷 여론의 주도층은 20대 젊은 층이었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정권의 대응이었다.

2008년 20대 다수가 공감한 촛불집회에 이명박 정부는 강경책으로 일관했고 이후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국회는 20대들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미디어법 강행처리, 언론장악시도 등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이후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을 강행하는 등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소통의 부재를 가장 강하게 느낀 세대가 바로 20대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2009년 7월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4.1퍼센트(참고로 30대는 53.9퍼센트, 40대는 44.9퍼센트)가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2) 5월22일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2명꼴인 21.3퍼센트는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8퍼센트가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30대(24.5퍼센트) 40대(18.2퍼센트) 50대 이상(6.7퍼센트) 등 연령이 올라갈수록 합조단 발표를 불신하는 비율이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20대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거 기권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20대가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다수의 국회도 20대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대들은 대거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기성정치권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자신들이 선택한 정부와 여당으로 인정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20대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에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2008년 촛불집회에서 20대들이 서슴 없이 출범 3개월 된 정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 숨어 있을 수 있다.

20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거 기권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거리의 촛불집회와 인터넷공간에서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은 정부의 비이성적인 강경대응에 봉쇄당했다. 결국 여타의 공간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 20대는 다시 ‘선거’라는 제도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야흐로 20대의 귀환이 시작된 것이다.

### 3. 제도의 개선이 필요

이번 선거를 통해 20대는 선거 때마다 투표율 하락을 주도하는 ‘미운오리’에서 단숨에 소위 정치마케팅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향후 예정되어있는 2012년 총선, 대선 등의 주요선거에서도 20대의 정치참여와 지지율 확보는 각 정치세력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오히려 20대는 이런 상황을 자신들의 현안문제인 청년실업, 대학등록금 문제해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대의 선거로의 귀환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20대 젊은 층의 선거참여와 다양한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젊은 층에서 투표율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해 선관위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sup>3)</sup>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젊은 층의 정치참여는 젊

3) 선관위는 선거법 93조에 의거해 트위터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이메일로 규정하고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이나 글, 동영상은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공정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선거법에 따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활동들을 규제하고 있다.

은 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선관위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인터넷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변화하는 환경에 선관위가 빠르게 발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전국 17개 대학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었다. 대학가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젊은 층이 투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실제 현황을 보면 대학생과 젊은 층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경우 고작 3곳 밖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서 2000명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학생숫자와 규모가 많게는 2만 여명에서 적게는 2천 여명수준까지 천차만별이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2000명이라는 조건은 상당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로 귀환한 20대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실업이나 등록금문제와 같은 청년층의 이슈와 의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는 정치세력의 존재가 필요할 것이다.

#### 4. 불통의 시대, 소통부재의 민주주의

20대는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 대거 선거로 복귀하여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21세기 판 ‘불통의 시대’가 정치냉소주의로 빠져들던 20대들을 다시 선거로 복귀시킨 것이다. 따지고 보면 7,80년대 군부독재정권이 지배하던 암흑과도 같은 소통부재의 시대에도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노력했다. 만약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처럼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들과 소통부재의 상황을 지속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20대와 청년층은 이번 선거처럼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서슴없이 표현할 것이다.

무대에서 퇴장했던 배우가 다시 무대로 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대사가 있기 때문이다.

